

# 丁 '룡린 채비' 孫 '화려한 부활' 鄭 '복당 악재'

<세균> <학규> <동영>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펼친 10·28 재보선 결과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향한 정세균, 손학규, 정동영 등 야권의 '빅3' 간에 가깝게는 차기 당권, 멀게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는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됐다. 이는 일반적인 평가다.

반면, 민주당 조기 복귀를 노리던 정동영 의원에게는 악재로 작용, 경쟁 구도에서 잠시 벗어나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벌서 경쟁 모드로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단 손 전 대표가 즉각적 정계복귀가 아닌 '춘천행'을 택하면서 긴장감 속에 서로를 견제하는 수준에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봄 4·29 재보선과 이번 재보선을

## 민주 재·보선 승리로 '빅3' 치열한 주도권 경쟁 시작

### 丁-孫 '당분간 전략적 협력' 지속... 추후 선의의 경쟁

거치며 맺어진 '전략적 협력(?) 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정 대표는 손 전 대표의 수원 재보선 승리 지원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수월 선거를 소홀하게 대함에 따른 반작용으로 당내 반대 세력도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손 대표 측 당내 인사들은 정 대표가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전보다 강한 견제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은 적어 광범한 긴장감 속에 협력을 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내 뿌리가 약했던 손 전 대표가 이번 선거를 통해 수도권내 영향력을 재확인하며 내년 수도권 지방선거 입지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손 전 대표는 "아직 때가 아니다"며 다시 칩거에 들어갔지만 그의 역할론에 대한 당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의 체질개선을 명분으로 정계복귀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세균 대표의 대국민 지지도가 현재 수준에 머무를 경우 수도권 입지자들 사이에서 조기전당대회론이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내년 초계 정세균-손학규 간 경쟁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당분간 복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기 힘들어졌다. 재선거 승리로 당내 입지가 확고해진 정세균 대표의 행보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오히려 정 대표 체제 안정에 자신감을 얻은 지도부가 야권 통합을 기치로 포용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친노세력과 함께 복당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당 핵심인사는 29일 "더이상 복당 문제는 당내 갈등요인이 아니다"라며 "늦어도 지방선거 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에 복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해태와 KIA 사이



김 여 울

체육부 기자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었다. 앞선 경기에서 무던히 애를 태웠던 2년차 나지완이 외야 밀리 2009년 프로야구 마지막을 알리는 공을 날려버린 순간, 숨죽여 지내던 KIA 타이거즈의 팬들과 선수 그리고 프런트들은 마침내 뜨거운 함성을 내지를 수 있었다.

12년이 걸렸다. 해태에서 KIA로 모습을 바꾼지 8년만이기도 하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구단과 팬은 평행선을 달렸다. 타이거즈를 인수한 후 매년 수백억원의 돈을 투자해온 구단은 KIA라는 새 모습을 전적으로 받아들이 주지 않는 팬들이 아쉬웠고, 팬들은 'V9'의 추억을 부당스러워하는 구단이 못마땅했다.

1980, 1990년대 해태 타이거즈는 소외된 호남민의 환과 설움을 달래준 약자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힘이었다. 스포츠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팀이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생각에 올드팬들은 KIA에 쉽게 마음을 주지 못했다.

정치적, 사회적 변화도 올드팬들의 마음을 단게 했다. 2000년대 들어 프로야구는 태생적 본질에서 벗어나 스포츠라는 측면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역색이 약화됐고, 구단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특정구단의 일방적인 독주가 어렵게 됐다. 올드팬들에게는 낯 설은 광경이었다. 많은 이들이 KIA를 모른 채 하며 해태의 향수에 젖는 이유다.

구단은 올드팬들의 향수를 채워주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해태의 모습을 떨쳐버리려 한 점도 있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여전히 해태를 연호하는 팬들이 있는 만큼 KIA에게 과거가 더욱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KIA는 타이거즈라는 이름으로 'V9'의 전통을 계승했다. 과거에 대한 책임도 KIA가 가지고 있다. 올 시즌 KIA는 과거와의 조우를 위한 조심스런 시도를 했었다. 팬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올드유니폼을 제작해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D-데이도 잡았지만 마지막까지 피파리는 1위 싸움에 이어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가다리고 기다리던 우승의 꿈을 이룬 KIA는 야구장을 떠났던 반쪽자리 타이거즈팬을 온전한 KIA 팬으로 끌어 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V9'이라는 성격을 안고 가기로 한만큼 팬들에게 남겨진 추억과도 동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팬 서비스다. 옛 명성력에 가만히 있어도 팬들이 먼저 찾는 전국구 인기구단이지만, 아직은 낯선 수준이다. 다른 팀들이 팬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계획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KIA는 여전히 느긋하다. 앞으로는 먼저 팬들을 찾고 이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그러문드러 주인공은 선수들이지만 KIA 타이거즈의 주인공은 팬이다.

팬들도 해태가 아닌 '타이거즈'로 현재의 KIA를 받아들여줘야 한다. 해태라는 이름도 한 기업의 상흔이다. KIA라는 주체가 있음에도 여전히 경기장을 채우는 해태라는 이름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wool@kwangju.co.kr

## '4대강·세종시' 與 압박 시동

### '자신감 충만' 민주, 정운찬 총리 해임안도 추진

10·28 재보결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강력하게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견제심리가 확인된 만큼 주요 정국현안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여권을 밀어 붙인다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건설 수정 문제, 효성비자금 사건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도권 선거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게 맞다"면서 "4대강 사업에 관한 국정조사를 관철해 4대강 문제 때문에 예산

심의가 지체되거나 파국을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충북 재보결 선거 승리와 관련, "세종시 문제, 혁신도시 문제에 관한 충청도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세종시는 말을 바꾸고 뒤집는 일을 그만두고 원안대로, 본래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향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하는 한편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한,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도 다른 야당과 협의한 뒤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2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회원들이 인도적 처원의 대북식량 지원과 대북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회원들이 인도적 처원의 대북식량 지원과 대북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이 민주주의 후퇴 불러"

### '희망과 대안' 박원순 변호사 광주서 강연

시민단체 연대조직인 '희망과 대안'이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KTX 광주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 '2010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강연에서 박 변호사는 "시민사회의 힘은 2002년 총선에서 낙선·낙천운동으로 여의도를 바꾼 경험"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KTX 광주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 '2010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강연에서 박 변호사는 "시민사회의 힘은 2002년 총선에서 낙선·낙천운동으로 여의도를 바꾼 경험"이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성능이 한층 강화된 새 상품을 내놓을 것이



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후보를 국민·주민의 이름으로 공천하고 지지하는 포지티브운동을 제시했다. 그 길에 '희

망과 대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앞장서지는 않겠다"고 일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해남 간척지 등에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해남·완도·진도 등 전남 남해안 간척지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된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도와 해남군 등 지자체, 에너지 전문업체 등이 서울 프레젠테이션에서 '전남 남해안 지역 방조제 풍력발전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 체결로 농어촌공사와 남부발전, 포스코건설, STX중공업, 보아스건

설 등은 1조2천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해남간척지 유희부지 등지에 오는 2016년까지 풍력발전소 2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남에 조성되는 40MW규모의 풍력산업단지는 순천시민 전체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77만MWh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이 완료되면 143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와 함께 연간 945억원의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송기동기자 song@

두번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프리드

인대중암상조

1566-4499

주최	인대중암상조
주최자	인대중암상조
주최처	인대중암상조
주최자	인대중암상조
주최처	인대중암상조
주최자	인대중암상조
주최처	인대중암상조